

월요논단



김태일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공간혁신과 기획의 시대에 대비하고 있는가?

나가 교육부의 '교육공간혁신사업'이다. 학교건축은 교육방식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교육방식이 다양하게 변화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건축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특히 학교공간의 절대적인 소비자인 학생들의 신체적 발달과 의식, 요구의 변화를 수용하는 의사결정과정 없이 있던 탓에 학교공간의 소비자들의 만족도는 그다지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공간혁신사업'의 목적과 취지는 첫째, 수요자인 학생과 교사들의 생활공간인 학교에서의 공간적 문제를 찾아내 제안하고 이를 교육 시설의 공급과정(설계-시공)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데 있다. 둘째, 의미있는 교육공간을 새롭게 창출하고자 하는 측면, 학생과 교사들이 스스로 자신의 학교의 공간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을 교육과정에 반영함으로써 건축공간

의 이해를 높이는 교육적 효과를 갖고자 하는데 있다. 국토교통부의 '공간환경전략계획'도 목적과 취지는 공간계획에 민간전문가의 참여와 공간디자이너의 혁신에 두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2007년 '건축기본법' 제정으로 공공건축의 통합관리·기획 전문성을 확보하고 개발 사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디자인 체계를 개선하는 통합관리계획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국책사업인 '도시재생사업'이나 제주도청에서 시행하고 '공공건축가제도'도 공급자 중심의 도시계획에서 지역 주민 중심의 도시계획, 물리적 기능 개선에서 인문적 가치 향상에 핵심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그 맥락은 같다. 우리사회가 크게 변하고 있다. 공간에 대한 요구도 크게 변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공간을 구성하는 초기단계에서 공공소비자 참여는 여전히

제도적 한계가 있는 것도 현실이지만 참여의 기회와 방법의 문제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행정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다양한 공공공간의 구상단계에서 담당부서와 담당자의 기획능력을 끌어 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행정현장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관행과 경험에 의존해 추진하는 사업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청도 마찬가지이다. 공간소비의 다양화, 세분화, 복잡화에 대응하기 위해 담당부서 사업의 공간디자이너와 발주방식의 혁신, 그리고 행정담당자의 기획능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와 교육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예기치 못했던 사회변화 속에 공공공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고, 행정의 기획능력 필요성도 더욱 높아졌다. 기획력은 미래를 준비하는 첫 단계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인 중심의 생활과 공간 소비가 확산되고 사회적 접촉의 방식도 다양화되고 있다. 공간소비는 다양화, 세분화, 복잡화돼 공간계획의 방법과 주체의 참여가 더욱 중요한 시대로 변해 가고 있다.

넓은 시각에서 본다면 굳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 때문이라기 보다는 코로나19 확산이 공간소비의 변화를 조금 더 일찍 앞당겼을 뿐이지만 최근 공공건축을 중심으로 공간의 혁신과 변화를 시도하려는 다양한 실험적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험적 사업의 하

열린마당

봄철 산불, 부주의는 재난의 시작



강현길 조천119센터 소방사

산림에서 가까운 곳(산림으로 부터 100m 이내)에서는 농부산물, 쓰레기 등은 태우지 않기.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는 다니지 말고, 입산 시에는 라이터, 버너 등 인화성 물질은 휴대하지 않기. 셋째, 산림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꽂초 버리지 말아야 한다.

또한 산불 발생 시 골든타임(50분)내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하므로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119나 관계기관(제주 산림청, 읍사무소)에 알린 후 즉시 대피해야 한다.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복구를 하는 데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한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아름다운 제주의 산림이 사라져 버린다면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자자손손 대대로 물려줄 아름다운 강산은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닌 과거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 사진에 불과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다사다난했던 제주의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상징하는 계절 봄이 왔다.

3-4월은 따뜻한 날씨 덕에 제주 각지의 오름에서 등산객들과 관광객들이 증가함과 동시에 날씨 변화가 심한 건조기로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기도하다.

산림청의 통계에 따르면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 기간 중 발생한 산불을 연간 산불 건수의 44%, 피해면적의 69%를 차지하고 100ha 이상의 대형 산불은 77%가 이 기간에 집중되고 있다.

이런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첫째는 산림과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배·보상 문제 용역진과 유족회 소통을...

원 지사, 행안부장관에 당부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3일 전 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가 정부와 유족 간의 소통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

원 지사는 이날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실에서 전해철 장관과 차담회를 갖고 "행안부에서 4·3특별법 개정에 적극 나서 주신 덕분에 전부개정이 이뤄질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달.

원 지사는 이어 "정부와 유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배·보상 기준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며 용역진과 유족회 간 원활한 소통활동을 당부. 강다혜기자

고교학점제 대학 연계 논의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대가 상호협력과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시작. 제주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추진단

과 제주대 고교-대학 연계 사업 추진비단은 최근 1차 협의회를 갖고 학생선택과목 확대에 따른 미개설 소인수·심화 과목 개설 운영 및 교사 연수 지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사업 운영 방향을 논의.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권 확대를 위한 고교-대학 연계 클러스터를 조성해나간다는 의지를 피력. 오은지기자

서귀포시 '청렴업서제' 주목

○...서귀포시가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사·용역·보조금·인허가 등 부패 취약 업무에 대한 민원처리 경험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청렴업서제'를 시행하며 결과가 주목.

시는 민원 처리과정에서 친절하고 적극적인지, 갑질을 당한 적이 있는지 등 7개 문항으로 업서를 제작해 발송할 계획.

정운창 기획예산과장은 "부조리 및 금품 향응 수수 등이 제보되면 조사 후 규정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점언. 백금탁기자

사설

4·3 후속과제들도 차질없이 추진돼야

올해 제73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은 남달랐다. 도민사회의 최대 숙원이었던 제주4·3특별법이 개정된 후 처음으로 거행된 추념식이어서 그 어느 해보다 의미가 있었다. 추념식 주제도 '뚝뚝이 활짝 피었수다'로 주목받았다. 제주4·3에 진정된 봄이 오고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년 연속 추념식을 찾아 4·3영령들과 유족들을 위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4·3추념식 추념사에서 "생존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이 비와 함께 씻겨 내려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법 등 남은 과제 역시 순조롭게 풀릴 것으로 보인다. 여·야 지도부도 추념식에 참석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4·3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만큼 후속과제들도 행정기관의 책임자로서 4·3의 아픈 역사를 되돌아보는 동시에 과거

사 문제 해결을 향한 의지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4·3특별법 전부 개정안 통과에 대해 "이제 4·3은 자기 모습을 찾게 됐다"고 평가하면서 후속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재임 중 세 번째로 4·3추념식에 참석하는 등 4·3의 완전한 해결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추념식에서도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정부는 4·3영령들과 생존희생자, 유가족과 국민의 염원을 담아 만든 설계도를 다듬고,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 추가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 회복 등 남은 과제 역시 순조롭게 풀릴 것으로 보인다. 여·야 지도부도 추념식에 참석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4·3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만큼 후속과제들도 생존희생자와 유가족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에 갈길 먼 백신접종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추세가 또 다시 증가세로 새로운 대유행 조짐을 보여 지역사회 우려도 커지고 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도 거의 연일 발생 중인 반면 백신접종 일정도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질병관리청 집계결과 지난 2일 기준 제주지역 예방접종 현황은 1, 2분기 전체 대상자 6만 3404명의 17.1%인 1만836명 중에 머물러 있다.

도내 코로나19 백신접종은 지난 1일 문을 연 한라체육관내 접종센터를 통해 만 75세 이상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시작했다. 지난날 도내 의료진 대상에 이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확대된 것이다. 7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백신접종 동의여부 조사결과 전체 대상 3만9100명 중 동의의사를 밝힌 3만3600명을 대상으로 하지만 먼

저 인구수와 코로나19 확진 비율이 높은 동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다 백신접종 일정도 더더

집단면역 형성까지 갈길 먼 '대장정'이 될 확산이 크다. 서귀포시 민들을 위한 접종센터는 아직 개소되지 않았고, 타 읍면지역 백신접종 일정도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질병관리청 집계결과 지난 2일 기준 제주지역 예방접종 현황은 1, 2분기 전체 대상자 6만 3404명의 17.1%인 1만836명 중에 머물러 있다.

반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추이는 심상치 않다. 전국 400명대가 최근 연 사흘째 500명대를 기록중인 가운데 제주지역도 31일, 1일, 2일 등 연속 발생중이다. 절기상 본격 날들이철인데다 모임 자체·이동제한에 대한 방역 불감증도 겹치면서 코로나19 확산우려를 고조시키고 있다.

도 방역당국은 백신접종의 철저한 상황관리와 순조로운 진행, 백신접종 일정 단축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 도민들 역시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와 집단면역 조기 형성에 아낌없이 협조해야 한다.

부고

고문호 어머니 남평문씨 일량(향년 96세)께서 서기 2021년 4월 3일 09시 31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21년 4월 6일(화요일)
▶발인일시: 2021년 4월 7일(수요일) 오전 8시 30분
▶발인장소: 한림정당장례식장
▶장 지: 한림읍 금능리 선영

아들 고문호 며느리 강정희
성호 박해순
석배 최순옥
딸 고유민 사위 나영철
유옥 황계춘
유경 고영민
경희 현대성

※ 연락처: 고문호 010-5150-4672
고성호 010-3693-6538
고석배 010-8662-3344
고경희 010-9839-6609
현대성 010-2040-2338

부고

현관명(제주스마트팜 대표) 아버지 연주현공 인옥(성산농협 조합장·향년 81세)께서 서기 2021년 4월 3일 21시 0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21년 4월 5일(월요일)
▶발인일시: 2021년 4월 6일(화요일) 오전 7시
▶발인장소: 성산읍 공설묘지 장례식장
▶장 지: 난산리 선영

부인 송옥금
아들 현관명 며느리 조용연
관훈 이경숙
딸 현영심 사위 강범길
손자 현승윤 손녀 현윤하
준하 외손녀 강유리
준우 근영

※ 연락처: 현관명 010-6744-9051
현관훈 010-7702-8441
현영심 010-9838-4028
강범길 010-4691-6308

부고

현대훈(주)한라산 아버지 연주현공 순국(前(주)한라산 부사장·前 제주도해군동지회 회장·前 해군ROTC 제주도회장·향년 74세)께서 서기 2021년 4월 4일 10시 52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21년 4월 5일(월요일)
▶발인일시: 2021년 4월 6일(화요일) 오전 8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3빈소
▶장 지: 양지공원-아흔아홉길 선영

부인 김봉순
아들 현대훈 며느리 김나연
딸 현혜진 사위 문규원
혜정 김병철
혜경

※ 연락처: 현대훈 010-2011-5982
현혜정 010-6541-5252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풍천임씨 순자(향년 91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4월 5일

남편 안창규
아들 안동수 며느리 이순희
동욱 한성숙
동우 이옥림
영호 오순경
딸 안복자 사위 박영길

태양광 설치

- ◎ 주택(단독 및 공동주택)
◎ 건물(상업용)
◎ 발전사업 & 유지보수
◎ 폐 태양광 철거 & 리파워링

Haenuri Energy Co., Ltd.
(주)해누리에너지
http://해누리에너지.com

T. 712-8081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